

## 중앙정부 적자 72.8조 ‘사상최대’

한은, 작년 공공부문 적자 65조 ↓  
총수입 883.4조... 4.9조 증가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적자 규모가 65조원 가까이 급감했다. 감소폭으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최대치다.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정부의 적자도 크게 늘었다. 중앙정부의 경우 72조8000억원 적자를 내 적자 규모가 통계작성 이후 가장 컸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50조6000억원 적자로 전년 14조7000억원 대비 65조3000억원 줄었다.

공공부문 총수입은 883조4000억원으로 4조9000억원(0.6%) 증가에 그쳤지만 총지출은 934조원으로 70조2000억원(8.1%) 증가한 탓이다.

부문별로는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을 포함한 일반정부의 수지는 44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 18

조4000억원 대비 적자폭이 커졌다. 총수입은 681조9000억원으로 1.7% 증가했지만 총지출이 726조2000억원으로 11%가량 늘었다.

한은은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은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법인세 등 조세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며 “최종소비지출 및 사회수혜금 지급이 증가한 데다 경상이전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는 법인세 등 조세 수입이 감소한 데다 코로나19 방역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 지출이 크게 늘어 적자폭 확대됐고, 지방정부는 지방세 수입 증가에도 민간이전 등 지출이 더 크게 증가해 적자 전환했다.

사회보장기금은 수입과 지출이 비슷하게 늘어 전년 수준의 적자를 유지했다.

한국전력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은 7조3000억원 적자로 적자폭이 소폭 늘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 고승범 금융위원장, 빅테크·핀테크기업 ‘금소법 적용’

# “금융안정·소비자 차원 꼭 필요”

**금융협회장 간담회 개최**  
“코로나 대출만기 6개월 연장 뒤 질서있는 연착륙방안 마련·지원”

“빅테크·핀테크의 동일기능·동일규제는 금융안정과 소비자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빅테크·핀테크 기업에도 예외 없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빅테크·핀테크 기업을 통한 경쟁 혁신을 촉진한다는 기존 금융위원회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빅테크와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서는 혁신과 소비자보호가 조화를 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룰 수 있도록 공존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일 카카오페이의 금융상품 비교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금융소비자법 12조에 따르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는 취급할 상품의 범위를 정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날 고 위원장은 빅테크·핀테크 기

업의 고액수수료 논란에 대해 “카드수수료에 더해진 측면이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대출 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 질서있는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최근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돼 조치연장을 요청해 왔다”며 “금융권 또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연장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6개월 연장한 뒤 질서있는 연착륙방안을 마련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 위원장은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한차례 더 연장하는 것이 내년 대선을 의식한 포석이 아니냐는 주장에는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조치와 가계부채 관리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정치적인 관점이 아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한방에 추석선물 고민 해결!

명품홍삼 제품을  
국내 최저가격으로 공급보장!

# 80% 할인!

(일부품목, 추석까지이며 일부 조기 품절 될 수 있습니다.)

## 6년근홍삼

제품가격 6천원부터  
제품종류 500여 개

SINCE 1996  
**BH 대한홍삼 [주]**

WWW.KOREAHONGSAM.CO.KR

25년 역사의 홍삼을 가장 잘 아는 기업

방문 환영 (인기상품 샘플완비)  
내방하시는 모든 분들께 사은품 증정!

**상품문의 (친절상담)**

☎ 02)2163-0044

☎ 010-5183-0048

📱 ID: KOREAHONGSAM

✉ haetter@naver.com

거래(카드,이체)하시고, 택배로 받으시게 됩니다.  
예금주: 대한홍삼(주) 기업은행 074-063579-01-010



**26일까지 추석연휴 특별방역 기간**  
요양병원·시설 방문면회 ‘가능’

이번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안에서는 식사를 할 수 없으며 음식은 포장만 가능하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휴게소는 피해갈 수 있도록 미리 정보를 전달한다. <관련기사 L8면>

방역당국은 13~26일을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이와 같은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추석 연휴 수도권에는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엔 3단계가 적용 중이지만, 이와 상관없이 가족 모임에 한해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4인까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다만, 모임은 외부가 아닌 가정에서만 가능하다. 집이 아닌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선 기존처럼 접종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또 이 기간 동안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방문면회가 가능해진다. 또 접종 완료자에 한해 접촉면회도 허용하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실내 방문시설은 사전 예약을 받아 방문객 1일 총량제를 적용한다. 다만, 제세척실과 휴게실은 이용할 수 없다.

방역 당국은 아직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만큼 부모님이 접종 완료자가 아니라면, 모임과 면회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추석 일 평균 이동량은 지난 추석보다 3.5%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철도의 경우 창가 좌석만 판매하며, 버스·항공·연안 여객선의 경우에도 창가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하고 있다. 모든 예매는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모든 교통수단은 운행 전후 소독 강화하고 상시 환기한다. 차내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대화는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보다 자가용 이용이 늘어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방역도 강화된다.

우선,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9곳에서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해 이동 중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휴게소의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QR코드 인증 등의 방식으로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했다.

휴게소 내 실내 테이블 운영은 중단되며 야외 테이블은 투명가림판을 설치한다. 모든 메뉴는 포장만 가능하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주요 휴게소 혼잡 안내시스템(32개소)을 가동해 혼잡정보를 도로전광표지(VMS)에 미리 표출하는 방식으로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